



굳은 살 없는 추신수의 손바닥... '양보다 질' 넥센이 애리조나캠프서 얻은 교훈 ..... 4면

# 스포츠동아

2014년 2월 28일·3월 1일 주말판 sportsdonga.com 20판



김광현 선발·박희수 마무리  
이만수감독 올해 보직 확정  
6면



오승환 이중동작 '보크' 논란  
한·일 심판들 팽팽한 신경전  
6면

## K리그 4룡, 광저우 '돈의 마법' 잠재워라

〈포항·울산·전북·서울〉

주말기획 | 亞 챔프 지상과제 '만리장성 넘어라'



아시아 클럽 무대에서 중국 축구는 늘 한 수 아래로 여겨졌다. 하지만 머니 파워를 앞세운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작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판도를 뒤흔들었다. 최근 5년 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올린 K리그가 다시 정상에 서려면 중국 클럽을 넘어셔야 한다. 광저우가 작년 11월 FC서울을 누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한화호는 모습.

광저우, 리피 감독·엘케손·무리키 몸값만 수백억원  
중 슈퍼리그 우승 후 작년 서울 꺾고 아시아 정상까지  
K리그, 6년 연속 챔스리그 결승행 광저우 격파가 관건



'만리장성을 넘어라.'

2014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4팀(포항 스틸러스, 울산 현대, 전북 현대, FC서울)의 지상과제다. K리그는 흥행 부진과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중계 등 국내에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아시아 각국 프로리그 우승팀들이 자웅을 겨루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09년부터 5년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포항(2009)과 성남 일화(2010·현 성남FC), 울산(2011)이 정상에 올랐고, 전북(2011)과 서울(2013)은 준우승을 했다.

얼마 전부터 K리그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전통의 라이벌 일본도, 까다로운 중동도 아닌 늘 한 수 아래로 여겨던 중국 슈퍼리그(1부 리그)다. 슈퍼리그의 공통 한 팀이 판도를 흔들어 봤다. 광저우 에버그란데다. 광저우는 2010년

부터 부동산 재벌 헝다 그룹의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그해 2부 리그 우승으로 슈퍼리그로 승격했다. 이후 광저우는 유명 축구스타 영입에 천문학적 돈을 썼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엘케손과 무리키의 몸값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 다. 광저우 감독은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세계적 명장 마르첼로 리피다. 리피 연봉만 150억원이다. 이들은 돈 값을 했다. 광저우는 승격 첫 해인 2011년 단숨에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작년까지 3연패에 성공했다. 자국리그에서 적수가 없어진 광저우의 목표는 하나. 아시아 제패였다. 광저우는 작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서울을 누르고 기어이 아시아 정상에 섰다. 올해도 광저우는 강력한 우승후보다. 엘케손과 무리키가 견제하고 이탈리아 대표 출신 디아만티가 새롭게 합류했다. 한국대표팀의 중앙수비수 김영권도 힘을 보탠다.

제2, 제3의 광저우가 속속 등장할 조짐이 보인다. 점이 더 무섭다. 서울과 같은 F조에 속한 베이징 궈안은 최근 스페인 출신 베테랑 지도자 만사노 감독을 영입했다. 베이징 궈안에는 작년까지 말리 축구영웅 카누데가 활약했고, 현재는 에콰도르 대표 공격수 게론, 나이지리아 대표 출신 공격수 우타카가 소속돼 있다. 포항과 한 조(B조)인 상동 루앙에는 브라질 대표 출신 바그너 리브라가 뛰고 있다. 울

해 챔피언스리그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광저우 부리 역시 스웨덴 출신 명장 에릭손에게 지휘봉을 맡기고 나이지리아 대표 출신 공격수 아쿠부를 데려오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광저우 에버그란데의 초고속 성장에 자극 받은 중국 클럽들은 언제든 지갑을 열 태세다. 물론 일부 스타 감독이나 선수에 의존하는 이런 정책이 중국 클럽 전체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머니 파워를 앞세운 중국 클럽들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새롭게 바뀐 제도로 변수다. 4강전까지 동아시아(한중일, 호주)와 서아시아(중동) 클럽들이 분리돼 경기를 치른다. 동아시아 클럽은 결승에 진출해야만 서아시아 클럽과 만난다. 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 클럽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강세를 보이자 서아시아가 AFC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렇게 규정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K리그는 중국을 넘지 못하면 6년 연속 결승 진출 팀을 배출하지 못한다.

오랜 기간 한중 축구를 관통한 말은 공안증(公案症)이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클럽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인정하기 싫지만 올 시즌은 K리그가 도전자다.

▶관련기사 2·3면

윤택서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 ● 최근 5년 간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진출 팀

| 시즌   | 우승            | 준우승         |
|------|---------------|-------------|
| 2009 | 포항 스틸러스(한국)   | 알 이티하드(사우디) |
| 2010 | 성남 일화(한국)     | 조바한(이란)     |
| 2011 | 울산 현대(한국)     | 전북 현대(한국)   |
| 2012 | 울산 현대(한국)     | 알 아흐리(사우디)  |
| 2013 |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 | FC서울(한국)    |
| 2014 | ?             | ?           |

### HYUNDAI MOBIS

| KBL 프로농구 경기결과 <27일> |                 |      |
|---------------------|-----------------|------|
| 전자랜드                | 70 : 63         | kt   |
| 모비스                 | 79 : 54         | 오리온스 |
| 오늘의 프로농구 <28일>      |                 |      |
| SK                  | <오후 7시> 잠실학생체육관 | KGC  |
| LG                  | <오후 7시> 창원실내체육관 | 삼성   |



## 나이 들수록 보험 들기가 어렵다구요? 이제 '무진단, 무심사'만 기억하세요!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 바로 가장 기본적인 보험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보험은 더욱 필요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도 적어지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다 보면 기분만 상하기 마련이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자이자 생명보험 판매자격을 보유한 이순재씨에게 노년기에 꼭 필요한보험과 좋은 보험 고르는 방법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이순재에게 듣는 실버 보험상품 잘 고르는 법, 4가지!

#### Q1 건강에 자신이 없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가?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크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먹고 있거나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건강 실버세대를 위한 보험상품을 고를 때는 무엇보다 건강검진이나 까다로운 심사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지, 즉 무진단 무심사 상품인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Q3 보험금은 쉽고 빠르게 지급되는가?

많은 실버세대들이 실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남겨진 자식들에게 병환비다. 장례비다. 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망 후 자식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려면 보험금이 쉽고 빠르게 지급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가입할 수 있는가?

2011년 출생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81.2세(2011년 생명표, 통계청)로 대한민국은 점점 100세 시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진정한 실버세대를 위한 보험이라면 81세 어르신들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Q4 보장 내용이 실버세대에게 꼼꼼히 맞춰졌는가?

어르신들은 동생을 갖다가 낙상하거나 꽃놀이를 갖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하시죠. 그래서 실버보험은 일반인보험금뿐만 아니라 재해사망도 알차게 보장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순재가 추천하는 실버세대 보험 - OK실버보험

실버세대 보험상품 잘 고르는 방법 4가지에 이어, 이순재씨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실버세대들을 위한 베스트 상품으로 '라이나 OK실버보험'을 추천했다. 라이나 OK실버보험은 건강에 자신 없는 어르신들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0세부터 나이가 많은 81세 어르신들도 가입 가능하고 경신을 통해 86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실버세대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한다. 또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해주고, 부득이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엔 사망자 유족을 찾아 보험금을 돌려주는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까지 운영하고 있어 실버세대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

#### 라이나무배당 OK실버보험 (갱신형)

- ◆50세~81세라면 나이, 건강 상관없이 무진단·무심사로 가입!
-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전액 일시금 지급!
- ◆질병·재해·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 보장!

(교역의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사망,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지금 전화하셔서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24시간  
무료 상담 문의

080-928-8585

최초계약 7년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에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됩니다.(갱신가능 최고 나이 81세). 계약일로부터 만 3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단, 재해 원인 시에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불량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됨.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부속(예금)에 대한 총합계 한도인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2280호(2013.10.8) [13-A-CL-188] (광고)